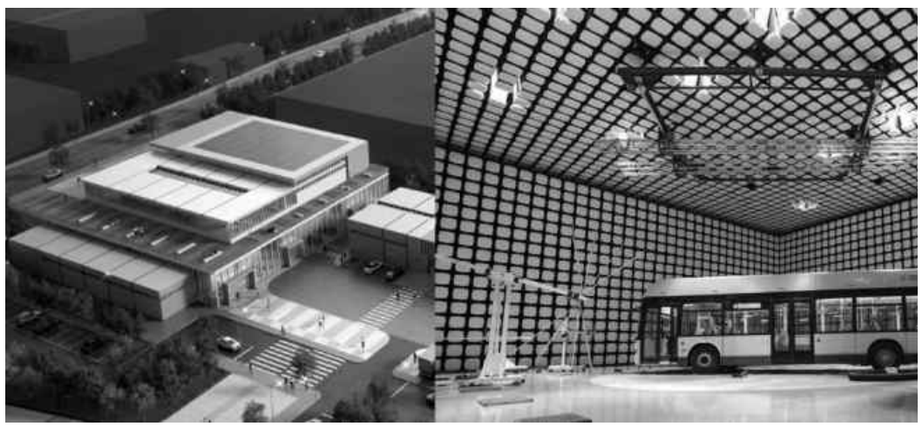
영광에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대마산단에 내달 착공 내년 완공
200억원 투입 1847㎡ 규모
국내 최초…관련 기업 유치 기대



영광군이 대마산단 내에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를 건립한다. 전자기파연구센터 조감도(왼쪽)와 챔버 설비. 〈영광군 제공〉

영광에 국내 최초로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을 인증하는 센터가 구축된다.

영광군은 대마산단 내에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가 다음달 착공해 내년 말까지 건립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증센터 건립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것이다.

사업비 200억(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에 총면적 1847㎡(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다.

군은 내년 말까지 시설 완공과 더불어 전자기파 인증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전자기파 인증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인증을 받았다.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가 대마산단 내 구축되면 중국이나 유럽서 전자기파 인증을 받지 않고, 대마산단 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유럽을 통해 인증을 받기 전보다 소요되는 인증비용이 감소해 자동차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군은 중대형 전기버스·수소 전기 트럭을 포함한 모든 차종에 대한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을 통해 미래차 관련 기업들의 대마산단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마산단 내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 건립과 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유럽과 중국 등으로 향하던 자동차기업들의 발걸음을 대마산단으로 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군, 위생업소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무안군이 지역 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무안군은 식당 등 지역 위생업소들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제공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위생등급제는 식중독 발생 여부, 식재료, 조리장, 화장실 관리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업소에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자가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인증원이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업소에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표지판 제공, 2년간 위생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무안국제공항 주변 음식점, 무안뻘낙지거리 음식점 중 신청을 받아 현장맞춤형 기술지원과 함께 위생용품을 지원하며 그 외의 업소도 신청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위생팀에 문의 하면 된다.

박홍근 무안군 보건소장은 "앞으로 위생등급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니 모든 업소들이 위생등급을 부여받아 군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비금농협 임직원들이 최근 상호 금융 예수금 1000억원을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비금농협 제공〉

신안 비금농협 예수금 1천억…"섬초가 효자"

6개월간 판매 실적 116억원

신안 비금농협이 섬초(시금치) 단일 품목으로 판매 실적 110억원을 기록하고 상호 금융 예수금 10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9일 비금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6개월여간 '섬초' 판매로 올린 실적이 116억원에 달해 지난해 99억원에 비해 1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17%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금이 겨울 야채 섬초 주산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비금농협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최근 섬초 생산 농가에 장호미 전달식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영농자재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저온저장고와 소포장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대형마트 납품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건전경영과 내실 있는 성장을 인정받아 1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비금농협은 다음 달 영농자재 2000여 품목을 갖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대형 영농자재 센터 문을 열고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조합원 대형 농기계 수리시 도선료 지원 사업을 전개해 농가 자부담은 1만원에 한하고 그 외 비용은 농협이 부담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영 비금농협 조합장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맺은 소중한 결과다"며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섬초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신뢰와 튼튼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돌아오는 해남' 만들자"

해남군-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재단 설립 추진 업무협약

해남군이 군 장학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하고 해남교육지원청과 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지원청은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학생과 군민을 위한 교육재단의 목적 사업 및 주요 사업을 협력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상호 활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재단이 설립되면 해남교육지원청에서는 인력을 파견하는 등 군과 함께 적극적인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군은 행복하고 즐거운 배움이 되는 교육이 삶과 일치하는 교육, '교육 때문에 떠나는 해남'이 아닌 '교육 덕분에 돌아오는 해남'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을 위한 검토 용역도 추진 중이다. 용역이 끝나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남군출자출연기관 심사 후 도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2차 협의를 통과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밑 작업은 마무리하게 된다.

이후 조례 공포, 발기인 및 창립총회 등 행정 절차에 따라 기타 제반 사항을 추진하면 올해 말에는 교육재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 주민들과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사업 지원, 교육의 협업을 통한 정책사업 추진, 지역 단체 및 주민,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장기적인 교육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교육하기 좋은 해남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수출상담회 5개국 310만 달러 계약

완도군이 수산물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생활문화센터에서 '완도군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완도군이 주최하고 전남도 중소기업진흥원 등이 주관한 이번 수출상담회는 언택트 마케팅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해외 바이어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다.

수출상담회에는 지역 농수특산품 우수 수출 기업 11곳과 해외 바이어(10개국) 24개 사가 각각 참가했다.

상담회에서는 완도군 수출 효자 품목인 전복을 활용한 전복 숙회, 광어 죽, 해조류 건강보조식품, 해조류면 등 다양한 완도 수산물 가공품을 선보여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총 40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호주와 베트남 등 5개국 바이어와 8건, 31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했다고 군은 전했다.

특히 완도군 수출상담회 개최 이래 최초로 코트라를 통해 세계 무역관들과 협업, 기존 한인 바이어에서 벗어나 해외 현지 로컬 바이어가 대거 초청되며 신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됐다는 평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 계약 성과를 낸 기업들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촉 행사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20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

목포시가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관내 9개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임신한 개체를 제외한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된 건강한 개를 키우는 가정은 접종 기간에 동물병원을 방문해 광견병 예방 접종(시술료 3000원)을 받으면 된다.

광견병 예방 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농업정책과(061-270- 846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치명적인 질병이다. 각 가정에서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 바란다"며 "원활한 접종을 위해 사전에 동물 등록번호를 파악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